



광주·전남 근로자들 '쥐꼬리' 월급에 허덕

광주·전남 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광양·여수·순천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시·군·구의 근로자 1인 당 평균 연봉이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쥐꼬리' 월급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국회의원(여수)이 24일 국제통계연보를 통해 분석한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2020년 1인 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높았던 곳은 광양으로 4천230만원이었다. 이어 여수 4천 80만원, 순천 3천860만원 순으로 나타나 광양제철·여수산단 입주 대기

대도시인 광주의 경우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남구 3천780만원 ▲서구 3천750만원 ▲동구 3천700만원 ▲광산구 3천560만원 ▲북구 3천400만원으로 집계돼 5개 구 모두 전국 평균 이하였다.

이와 달리 근로자 1인 당 평균 급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 강남구였다. 강남구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7천440만원으로 전국 평균(3천830만원) 대비 3천610만원 많았다.

1인 당 평균 총급여액이 두 배로 많은 곳 역시 강남구로 대 표되는 서초구(7천410만원)였다. 1인 당 평균 총급여액 상위 10개 시·군·구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했다. 이중 8곳은 서울이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외에도 용산구(6천470만원), 경기 과천시(6천100만원), 송파구(5천190만원), 경기 성남시(5천만원), 종로구(4천880만원), 성동구(4천800만원), 마포구(4천780만원), 중구(4천710만원)가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김희재 의원은 "지자체 별 격차가 국토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라도 정부의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동부권 제외 24개 시·군·구 연봉 전국 평균 이하
광주 5개구도 마찬가지로...해남·영암·고흥 최하위
김희재 "지자체별 격차가 '빈익빈 부익부' 초래"

尹정부, 흑산공항 건설 의지 보여라

道, 대체 부지 마련 국립공원위 심의 제출
관계부처 의견 조율만 반년 넘게 '하세월'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마지막 관문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남겨둔 가운데 관계부처 간 의견 조율만 반년 넘게 이어지며 합의점을 도

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남을 찾아 흑산공항 건설을 약속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 환경부가 관계부처 간 합의 절차를 시작했지만 지금까지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관계부처 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에서 다른 편입 부지를 놓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민감한 문제가 있어 의견 조율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 국립공원 부지 1.2㎢를 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고 대체 부지로 선도 갯벌 5.3㎢를 국립공원 구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수부의 반대로 신안군 명사십리 해수욕장 주변 해역 5.5㎢를 대체 부지로 내놓겠다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환경부는 10년을 주기로 전국 22개 국립공원 구역과 용도지구를 재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흑산공항과 관련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뿐만 아니라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협의도 동시 진행 중이어서 관련 협의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게 전남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지만 관계부처 간 최종 합의는 추석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일정 역시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지난해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올해 중 착공하겠다는 전남도의 구상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게 중론이다. 전남도는 현재 부처 간 공문 별 상호 교환에 의한 해제·편입 부분을 매주 협의 중이며 해수부·산림청과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만큼 9월 중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될 경우 내년 상반기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하반기 착공을 기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2면에 계속 /변은진기자



추석 앞두고 분주한 한과공장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보름여 앞둔 24일 담양군 청평면 한과 제조업체에서 직원들이 선물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유과와 약과, 강정 등의 전통한과를 포장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김애리기자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 차질 우려

기재부예타대상 탈락...11월 재도전

전남대병원의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에서 탈락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24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 사업 안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결과, 전남대병원 새병원 신축은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논의를 거친 뒤 예타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전남대 의과대학 부지의 용도변경이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보완 후 오는 11월 4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은 기존 전남대병원과 전남대 학동캠퍼스 부지에 총 사업비 1조2천억원을 들여 연면적 약 27만㎡, 1천300병상 규모로 오는 2024년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었다. /오복기자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안, 중앙위서 부결

'기소시 당직정지·권리당원 전원투표' 등 제동
비대위 당총속 긴급회의, "예상 어려웠던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기소시 당직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24일 부결됐다.

이른바 '개팔'로 상징되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요구로 시작돼 당내 친명·비명 진영의 갈등 요소로 떠올랐던 당헌 개정안이 마지막 단계에서 갑작스레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이런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변재일 의장이 발표했다.

해당 안건은 재직 중앙위원 506명 가운데 267명(47.3%)이 찬성, 과반에 미달했다. 특히 이 같은 결과는 중앙위원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 민주당의 핵심 요원으로 구성되는 당의 대의기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개정안 부결은 당헌 제80조 개정안과 제14조의2 신설안에 대한 당내 이견이 표면화된 것이라 관측이다.

우선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 논의가 공문화됐다.

전준위는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가 아닌 '하급심의 금고 이상 유죄판결'의 경우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반면 비이재명계에서는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용 위안설법' 아

나며 반대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비대위에서는 기소시 당직 정지 규정은 유지하되 구제 조항을 수정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정치탄압 등이 인정될 경우 당직 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절충안은 지난 19일 당무위를 통과했으나, 이날 중앙위 문턱은 넘지 못했다.

▶2면에 계속 /김진수기자

Today

- 올해 광주 인구 5천800명 순유출 12면
- 正史로 읽는 전라도 역사기행 14면
- KIA 파노니 "양현종 조인 큰 도움" 16면

제9회 무등산 문학 백일장

광주매일신문은 유구한 문학의 산실인 호남 향토문학정신을 계승하고 가사문학을 부흥해 지역의 문학미재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청소년 및 문예인을 발굴하고자 제9회 무등산 문학백일장을 개최합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문인 발굴과 창작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번 백일장에 글쓰기와 문학에 관심있는 청소년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 부문 ① 시 ② 산문(스토리텔링)

작품 주제 ① 무등산 및 지역향토성 관련 자유주제
② 가사문학 관련 자유주제 (스토리텔링은 인물, 플롯, 주제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작품)

응모 방법 - 응모대상 : 일반부 / 전국 청소년(중·고생)
- 원고분량 : 시(1인당 3편) / 산문(1인 1편, 5천~6천자 내외)
- 응모기간 : 2022년 6월 2일 ~ 8월 30일까지
- 입상자 발표 : 2022년 9월 15일(목) 본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보내실 곳 : 무등산 문학백일장 홈페이지(http://gasa.kjdaily.com)
- 문 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기 타 - 응모 작품 사안에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학생부(학교명, 학년) 기재할 것
- 기존 발표적이거나 표절사실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됨.

주 최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TV

후 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담양군 화순군